



결혼의 기회비용

「경제원론1」과 「현대인의 성과 사랑」강의페어링

경제학과, 16학번, 김세훈, 이진희 교수님 지도

연구 배경 및 목적



2020년 혼인 건수가 혼인 통계를 내기 시작했던 1970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 혼인 건수는 21만 4천 건을 기록했으며 2019년에 비해 약 11%에 달하는 2만 6천 건이 줄어들었다. 물론 작년 혼인율의 수치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혼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혼인율의 감소는 출산인구의 감소와 직결된다.** 출산인구의 감소는 **향후 국가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는지 기회비용이라는 경제학 개념을 통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혼인율이 감소하는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가는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강의페어링

경제원론1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것의 가치. 즉, 모든 선택에는 선택한 재화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현대인의 성과 사랑 [결혼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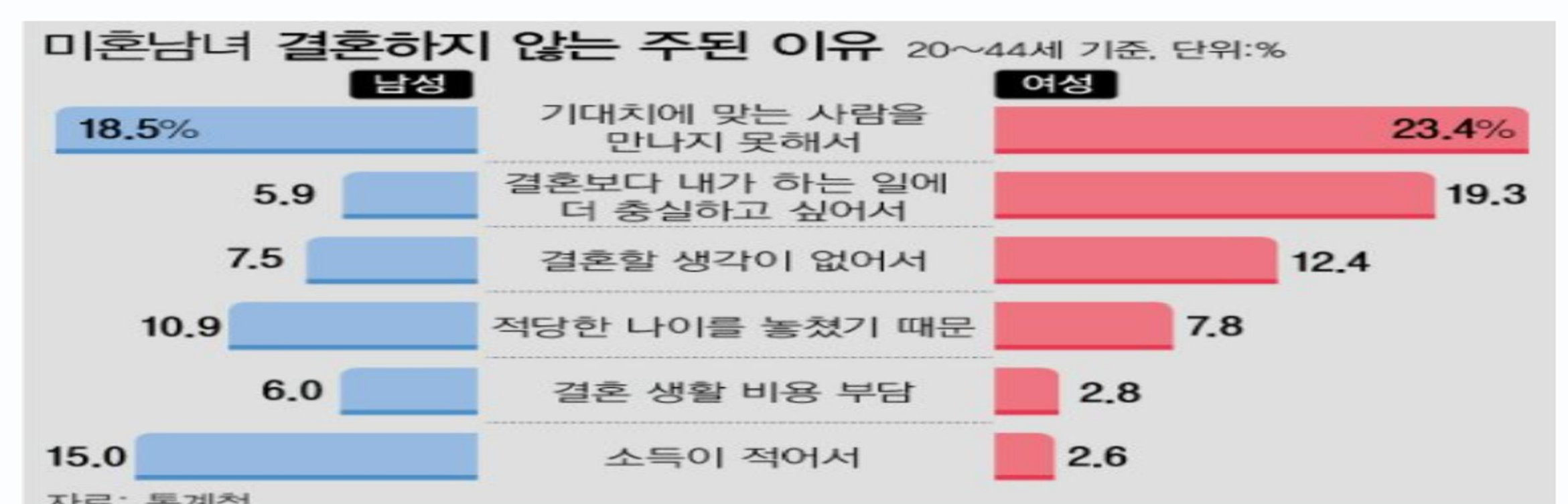
결혼 제도는 사회가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 결합하여 부부가 되는 것. 사회적으로 인정된 지속적인 남녀의 성적 결합이며, 경제적 협력이 따르는 사회적 제도다.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발생하며 결혼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결혼을 선택함에 따른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은 아닐까?

현상분석

다음은 통계청에서 미혼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조사한 자료다.

통계청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첫번째 주된 이유는 남성과 여성 모두 기대치에 맞는 이성을 만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지금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더 좋은 조건의 이성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개인의 만족도 측면에서 결혼의 기회비용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두번째 이유부터 남성과 여성이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남성의 경우 소득이 적기 때문에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고, 여성의 경우 결혼보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싶어서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출발하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르면 남성은 노동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가사활동을 하는 것에 각자 비교우위가 있으며 이에 따라 결혼이라는 계약을 맺고 서로 이득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았을 때 우선 **남성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결혼의 기회비용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결혼을 선택했을 때 여전히 남성이 경제적으로 책임질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여성의 경제적 활동이 증가했으며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났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개인의 만족도 측면에서 결혼의 기회비용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자료에서 언급된 나머지 이유들도 대부분 앞서 언급한 경제적 측면과 개인의 만족도 측면에서 결혼의 기회비용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크게 이 **두가지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다면 결혼에 대한 기회비용을 낮출 수 있고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해결방안

경제적 측면에서 해결방안

경제적 측면에서 해결방안으로 현재 국가 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국가에서 미혼 인구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 지원이 시작된 것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부터로 볼 수 있으며 현재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이 진행중이다. 이 중에서 특히 일자리 문제(청년내일채움공제)와 주거 문제(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신혼부부 주택 마련 자금 지원 등)를 위주로 결혼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미혼의 청년들이 경제적 안정성을 찾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한 만큼 국가 정책의 정당성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만 정책이 진행되는 기준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며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혼의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만족도 측면에서 해결방안

사실 앞서 언급한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의 만족도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결혼에 대한 기회비용을 낮추고 혼인율을 높일 수 있는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다만 개인의 만족도 측면에서 보았을 때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가정책이라는 명목하에 관여하려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혼남녀에게 결혼은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개인의 만족도 측면에서 유일한 극복방안으로 생각된다. 결혼이 주는 만족감 설문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정서적인 안정감이 1위였다. 결국 과거의 결혼제도가 가지는 고정관념(시기가 되면 적당한 상대를 만나서 결혼 후 서로 맞춰사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결혼을 통해 더 큰 행복감을 얻는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론

결론적으로 정책적인 논의가 힘든 개인의 만족도 측면을 제외하고 결혼의 기회비용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측면에서 앞으로 국가의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더 논의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일자리에 대한 질적 확보**다. 미혼의 청년들이 결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단순히 일자리의 수를 늘리는 양적 개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안정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지속적인 주거 문제 대책 마련**이다. 예비 신혼부부에게 결혼을 위해 생활할 공간이 마련되었다 해도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다면 주거 환경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결국 주거 부담은 또 다시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주거 문제를 신혼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근본적인 주택시장 문제 해결과 함께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김은지(2017), "결혼의 경제적 손실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The Women's studies, p6
 변수정(2017), "결혼의 지원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 보건복지포럼, p14~16
 보건복지부(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4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01&page=1&CONT_SEQ=358262&PAR_CONT_SEQ=356080